

시론

나를 비웃고 무시하며 외면하게 하는 법



박 남 기
광주교대 교수

앤드류 카네기에 따르면 "미웃음을 사고, 무시당하며, 외면까지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은 상대의 이야기를 절대 끝까지 들으면 안 되고, 계속 자기의 말만 해야 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듣다가 할 이야기가 있으면 바로 끊고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다."

지역 대학 총장협의회를 하는데 평소에도 말이 많던 모 총장이 계속해서 반복된 주장을 하기에 그의 말을 끊도록 의장에게 신호를 보냈다. 의장이 중단을 시키자, 당신이 원대 남의 이야기를 끊으며 필자에게 화를 냈다. 필자가 곧바로 사과했지만, 그와의 관계는 그것으로 끝났다. 몇 년이 지난 후에 우연히 상가에서 마주했는데 다시 그 이야기를 꺼냈다. 그의 뒤끝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필자가 별 생각 없이 했던 행동이 그에게는 그만 큼이나 강하게 각인되었다는 의미이다. 카네기가 이야기한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게 하는 법'을 잘 실천한 결과였다.

총장 시절 교수와 직원들이 면담하러 오면 끝까지 들고 있다가 힘들어서 중간에 간단히 이야기해달라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이 요지가 이것이지요"라고 하면서 말을 끊은 적이 많았다. 핑계는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경우 내 짐작이 맞았고, 상대가 그렇다고 할 경우 내가 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고 내 보냈다. 필자는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내 방에 왔던 사람들은 실령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것 같다. 자기의 처지를 호소하고 필자의 위로도 받고 싶었을 텐데 내가 중간에 끊었으니 말이다. 나이도 어린 x이 총장 자리에 앉았다고 스스로 대단할 줄 아는 모양이라고 뒤에서 비웃었을 것이다. 필자를 비웃게 하는 법을 나름 잘 실천했던 것 같다.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면담 요청자의 말을 끝까지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그리하면 내가 중간에 말을 끊거나 내 이야기를 하더라도 상대가 이해하며 받아들인다. 내가 회의를 주재할 때는 시작 시에 회의 종료 시간을 명확히 하고, 참가자들의 동의를 얻은 후에 회의를 시작한다. 너무 길게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회의 종료 시간을 환기시키면서 양해를 구하면, 자신들이 오히려 미안해하면서 말을 간결하게 한다. 따라서 상대가 나를 외면하게 하려면 대화 시작하기 전에 상황을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회의 종료 시간을 미리 정하고 동의를 구해서도 안 된다.

내 좌우명은 '큰 귀 작은 입'인데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내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된다. 직업이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

니 그런가 싶어서 대화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나에게 이야기를 청하기 전에는 가능하면 들으면서 끊임없이 기다린다. 먼저 퇴임한 친구에 따르면 모임에서 가장 인기 없는 사람이 퇴직 교수라고 한다. 무슨 말을 하든 끼어들어 자기 이야기를 하려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려 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하면 사람들이 슬슬 피하거나, 대놓고 화를 내고, 그를 무시하여 결국 자기 스스로 모임에 나오지 않더라고 했다. 교수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며 외면하게 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경인교대 박인기 명예교수에 따르면 상대방의 말을 끊거나 가로채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일종의 권력 행사하기'를 하는 사람이다. 힘이 없는 사람은 그리하지 않는다. 돌아보면 내가 총장 시절에 했던 무례한 행동도 권력 행사하기에 속한다.

교수들이 일반 모임에서 쓸데없이 끼어들어 가르치려 드는 것도 수업 중에 무심코 권력을 행사하던 습관이 몸에 밴 결과일 것이다. 나도 교수이니 애써 노력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보기 싫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장수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건강장수 비법의 하나는 보기 싫은 사람은 만나지 않는 것이다. 비웃고 무시하며 나를 외면하게 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한 나는 노년 삶의 외롭게 마감할 각오를 해야 할 것 같다. 아니면 오늘부터라도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는 데는 6년이 걸린다"는 말을 되새기며 다시 태어나보자.

社說

광주 백운광장 지하차도 공사 순항을 바라는 것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맞물려 백운광장 지하차도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남구청 앞 대남대로 선형 개량사업이 그것으로 백운광장-주월교차로 965m 구간에 총 588억원이 투입돼 2025년 6월 개통을 목표로 한다. 현재 공정률은 55%다. 광주시는 2015년 기본·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비와 지하공간, 교통량 등을 감안, 조선대에서 농성광장 방향으로 편도 2차로로 추진했으나 주민 민원 등을 수용해 2021년 10월 양복 2차로(편도 1차선)로 바꿨다. 2022년 1월 흙막이 가시설 및 복공판 설치를 시작으로 같은해 12월까지 10차례 설명회를 거쳐 보완 설계를 마치고 공사를 본격화했다.

백운광장을 경유하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도 순항 중이다. 2026년 말 운행 예정으로 공정률은 71%다. 도로를 굴착해 지하에 구조물과 정거장을 짓고 흙을 메운 뒤 복공판을 설치하며, 공사가 완료되면 복공판을 해제하고 아스팔트로 재포장하는 방식인 저심도 개착 공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상반기 40%, 하반기 60% 구간에 대해 아스팔트 포장까지 끝나는 계획이어서 내년

초 지상 도로가 모두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2019년 9월 착공 후 설계 변경과 사업비 부족 등에 따라 정상 개통이 3년 정도 지연된 상황이다.

백운광장 지하차도는 철거된 백운고가의 급경사·급커브로 발생하는 잦은 사고와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당초에 한 방향으로만 운영할 경우 운전자들이 생소한 환경 때문에 위험이 커지고, 반대 방향의 정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양방향으로 변경한 것도 타당했다. 지금의 일정대로 차질이 있어선 안 되는 것이다. 도시철도와 지하차도 공사가 동시에 실시되면서 시민들은 극심한 불편과 혼란을 겪어왔다. 앞으로 도 당분간 차선 변경, 체중은 불가피하다. 딱 1년 남았다. 내년 상반기 공사 마무리를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 또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즉각적으로 개통돼야 한다.

광주와 나주·목포를 잇는 관문이다. 지역 5개 간선도로 교통 흐름에 영향을 주는 교차로다.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생산액 5조원 기치로 내건 해양수산물도 전남

명실상부한 해양수산물 수도다. 천혜의 해안선은 전국의 45%인 6천873km, 섬은 64%인 2천165개, 생물 다양성의 보고 갯벌은 43%인 1천537㎢를 차지한다. 수산물 생산량과 생산액 모두가 전국 최고다. 효자품목 김은 단일 품목으로는 최초로 수출액 1조원을 넘어섰다. 해외에서 선풍적인 인기로 케이(K)-푸드 대표로 받들음했다. 수산물 생산액 5조원 달성을 위해 수산인들이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전남도는 적극적인 지원으로 힘을 실었다.

고유·고물가 등 어려운 여건이다. 바다 수온도 평년 대비 1℃ 내외로 높게 지속되고 있다. 장마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폭염기에 접어들다. 여름철 고수온·적조 피해 제로화에 전력해야 한다. 전남도는 안전한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 기반 확대를 위해 김 양식어장 확대, 수산식품 거점단지 및 수출단지 조성 추진 중이다. 또한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수산양식 기자재·스마트양식 클러스터,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팩토리 등을 실었다.

'세계로 뚫어주는 전남, 미래로 도약하는 수산업경영인'이라는 주제로 제11회 한국수산업경영인 전남대회(이하 '전남대회')가 완도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도내 15개 시·군에서 3천여명이 참석했으며, 수산업·어촌의 현수소를 공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승화했다. 이 행사는 수산업의 미래를 짊어질 경영인 상호 친목 도모와 수산업 분야 정책 및 최신정보 교환 등을 통해 풍요로운 어촌 건설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2년마다 개최된다. 최대 규모다.

생산과 가공, 수출까지 수산업 전반이 전남에서 이뤄진다. 품질이 뛰어난 양질의 수산물 판매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수산물 생산량은 전국의 60% 수준이고, 어업인 수도 40%에 육박한다. 단연 독보적인 생산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바다다. 특히 오염되지 않았다. 청정하다. 전남이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수산 1번지로 우뚝 서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

김영순의 '문화터치'



광주문화재단 전문위원

산을 오르며 뮤지컬을 감상한다. 그게 가능한 일일까? 답은 그렇다. 광주 동구가 최근 무등산 일원에서 마련한 장소특정형 연극 '시간의 숲, 무등'에서의 일이다. 지역의 인물 자원이 이 연극을 통해 친근하게 다가왔다. 인문정신은 강의를 통해서나 가능하다고 여겼던 기존의 생각을 확 틀었다. 역사와 인물 자원이 산행과 연극, 인문해설로 입체적 접근이 가능하며 이로써 지역의 문화 관광콘텐츠로 우뚝 서는 걸 보여주었다.

녹음 우거진 길을 따라 무등산을 오른다. 팔팔 쏟아지는 계곡물 소리에 마음이 절로 깨끗해진다. 잠깐 해찰하는 사이 앞무리가 한참이나 앞서버린다. 어이쿠, 뒤종거리며 달려간다. 간신히 문화해설사의 이야기를 따라잡는다. 무등에서 살다간 광주 선각자들의 스토리다. 이 독특한 산행은 신기하고 재밌다. 올라가는 사이 사이, 특정 공간에서 무등산의 상징적 인물 의재 허백련(1891-1977) 오방 최흥중(1880-1966) 석야 최원순(1896-1936) 등에 대한 해설을 풀어놓는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짙막한 뮤지컬, 너무 신나다.

이게 쉽게 이뤄진 것은 아니다. 인문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시 동구가 지난 해 무등산

무등산행과 뮤지컬, 그리고 광주정신

문축제를 진행하면서 지역에 부합하는 고유한 문화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희망을 갖고 문화기획자, 동구 시설의 관계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댔다. 뭔가 신박한 게 나올 듯 한데, 그렇게 탄생했다. 그러나 그게 가능할까? 산행과 뮤지컬의 콜라보가 현장에서 풀어내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고개를 가로짓기도 했다. 그러나 뜻이 있으면 길이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몇차례 자문을 통해 큰 열거를 만들었다. 이어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짰다. 주인공은 앞서 말한 3인이다. 그들이 무등산 출신이라는 공간을 앞서거나 뒷서거나 점유하면서 벌이는 광주사랑, 무등의 정신을 해설과 뮤지컬에 담는 것이다. 그리하여 산행 중간중간, 문화해설과 뮤지컬 공연으로 엮어 재밌고도 신기한 경험을 안기는 게 이 기획이었다. 그리고 올해 성공적인 데뷔를 마쳤다.

첫 주인공은 오방 최흥중이다. '오방'이라고 호를 짓고 무등산에 입산한 인물이다. 젊은 시절 삼작 결명(?) 됐던 그는 외국인 선교사가 나환자를 부축하는 모습에 깜짝 놀라 인생의 방향을 확 바꾼다. 광주 최초의 목사로 1919년 항일운동 참여했고, 조선나환자 구환운동에 앞장섰다. 소록도 나병원 건립 토대도 그가 마련했다. 또 산을 올라간다. 관동대 앞에선 의재 허백련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진다. 진도출신으로 일본 유학 후 조선 미술전람회서 1등 없는 2등을 차지했지만, 모든 명예를 내려놓고 광주로 내려와 무등산에 자리잡는다. 농업학교를 만들어 청년들에게 농업을 전수했으며, 춘설차밭을

조성해 차분화 보급에도 힘썼다. 마지막으로 석야 최원순이다.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역임한 석야는 병을 얻어 요양차 내려온 무등산에서 자연을 호흡하며 살면서 독립운동가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실행한다. 광주 최초의 여의사인 현덕신과 결혼한 그는 무등산에 석야정을 짓고 그곳에서 요양했다.

3인의 공동공간이 춘설현이다. 석야 최원순이 무등산에 석야정을 지었으며, 후일 오방 최흥중, 의재 허백련에게 양도돼 춘설현으로 불리워졌으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춘설현은 나눔과 배움, 그리고 섬김의 정신을 흠뻑뿌했던 무등과 광주정신이 태동된 중요한 지리다. 그 사연을 들으며 의재미술관까지 올라간다. 이화학당을 졸업하고 동경의대에 재학 중인 현덕신이 나레이션한다. 그리고 일본에 유학 중인 청년 허백련이 등장한다. "조선의 산수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림으로 민족을 일으키겠다"며 미래에 대한 투지를 불태웠다. 춘설현 길목에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듬는 오방 최흥중의 늠름한 모습이 재현됐고, 춘설현 마당에선 최원순의 민족사랑이 노래로 불리워졌다.

참가자들의 반응이 뜨겁다. 지역의 역사문화공간과 인물을 산행과 엮어 뮤지컬로 풀어낸다는 게 신박했다. 지난 5월 시작돼 오는 11월까지 계속될 이 문화이벤트는 무등산을 찾는 시민과 외지 관광객들에게 곁길 무등과 광주정신을 경쾌하면서도 오롯이 전하기에 충분할 거 같다. 내려오는 길, 계곡물 소리가 더욱 청아하다.

독자투고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한층 더 강화해야



국민의 50%가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367명 중 325명(약 88.5%)이 '현재 청소년 마약 노출 위험이 심각하다(매우 심각 포함)'고 답했다.

또 청소년 마약 노출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청소년에 대한 마약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0%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뒤를 이

었다. 마약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음주·흡연과 혼재된 교육이 아닌 별도의 마약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1.4%(3359명)로 압도적이었다.

특히 주된 마약 예방 대상인 18세 이하의 94.3%가 별도의 마약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교육을 필수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95.3%(3천52명)가 찬성했다.

학교에서는 마약 예방 교육 이수제 도입, 중간·기말고사·수능 문제로 출제하고, 마약 관련 기관에서 현장체험 등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청소년 마약예방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박혜원·합평경찰서 경무과)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 뉴스: 중고생 14% "인터넷하다 의도치않게 미성년자 성착취물 봤다"
중고등학생의 14% 이상은 인터넷을 이용하다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의 성적 이미지를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인식 및 피해 경험 조사'를 내놓았다.
지난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세대학교,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중·고등학생 4천757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4.4%는 '인터넷 이용 중에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의 성적 이미지에 노출된 적이 있다'고 답했다. 68.3%가 가장 많이 노출된 경로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꼽았다. 3.9%는 '누군가로부터 본인의 성적 이미지를 보내라거나 공유하라는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사람이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를 촬영한 경우는 1.7%, 낯선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카메라로 몰래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는 1.1%로 집계됐다. '본인의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겠다고 협박이나 강요받았다'고 밝힌 청소년은 0.6%였다. 비동의 상태에서 허위 영상물을 포함한 본인의 성적 이미지가 공유·유포된 경우는 1.1%였다. '자신의 비동의 촬영' 피해를 본 청소년의 46.1%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10(가)10(가)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0원